

2025년 12월 17일(수), 수요예배 설교,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복 받는 성도

1. 서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제공받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긴 하지만 내가 스스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인 자연 만물을 조화롭게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급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특별한 공급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는 이 복이 없어도 되지만, 성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런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려는 주제입니다.

2. 본론

1) 성도는 사도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2-3절과 같은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1절에서 형제 소스데네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권위가 중심이 되어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지만, 사도에게 주신 권위는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매’를 언급하면서 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흐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엡 4:11-12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5중직을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5 가지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며, 쉽게 말해서 전임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이나, 어떤 지역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부흥사나 순회선교사를 떠올리면 비슷합니다. 한 지역 교회를 섬기기 보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직임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돌보는 목양에 집중된 직임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직임입니다. 성경에서는 아

볼로와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목사라는 직분 아래 5 가지 직분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5중직을 주시면서 그 직임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바로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엡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은 교회입니다. 각 마디를 통해 도움 받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역사, 일합니다. 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갑니다. 각 마디는 무엇입니까? 11-12절에 교회에 5중직을 주심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몸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세워집니다. 각 마디는 5중직에 해당하는 직임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몸의 지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몸의 지체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도를 직접 세우시기보다 5중직을 교회에 주시고, 그 직임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몸 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원리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구조가 교회에 잘 세워질 때 성도들이 성장해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직임이 사도입니다. 성도가 사도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는 누구일까요? 신약의 두 종류의 사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입니다. 사도의 기준을 제시한 사도행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행 1:21-22

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12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또 다른 사도가 나옵니다.

행 14: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5중직에서 사도는 12사도가 아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어 보낸 자입니다. 사도는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해 전할 복음 메시지를 받아 보냄 받았기에 사도라고 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5중직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직분이기에 지금도 교회에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는 어떤 직임에 비견될까요? 예수님께서 지역 교회에 사명, 비전, 메

시지를 주어 보내신 담임목사의 직임이 사도의 직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역 교회의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축복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목사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가톨릭의 사제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이 원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즘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원리를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은혜가 풍성했던 시절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사역자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은혜가 희미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들과 이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2) 성도는 사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는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위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마다 나오는 인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인사를 빼 놓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기에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먼저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입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에는 너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눈이 가린 우리를 깨우쳐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막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성도를 사랑할 힘을 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 즉 은혜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인 은혜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없이는 조금도 성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평화, 화평, 평안 등의 뜻이 있습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상태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 이루어질 상태입니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성도에게 평강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므로 평안한 상태, 완전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시 3: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한 상태입니다. 세상이 망해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평강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도가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평강으로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는 성도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 복이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도를 통해 이 복을 받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은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은혜와 평강을 빌면 모두 복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복을 빌어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아닌 2절과 같이 대상을 한정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정도로 부름 받은 그 상태, 정도이면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도의 그 상태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정도의 그 상태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애씀 없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서 정도다운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 정도는 거룩하여져서 부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지고 정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정도는 그 말 뜻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별되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정도로 삼으셨습니다. 정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무엇이 구별되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원수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 안에서 살아갑니다. 정도는 그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구별되었습니다. 죄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죄에서 구별되었기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세상이라는 죄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하셨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2절에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4) 정도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성도는 환난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도는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도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정도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정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정도는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도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 다른 모든 도움을 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잘 못해서 그렇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평소하던 대로 기획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실행하는데 상황적인 변수가 생겨서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내 경험을 떠올립니다. 내가 골똘히 고민합니다. 사람들과 계속 회의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추진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 자기 방법,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죄는 없는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시 회의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추진합니다. 잘 안 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

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다시 회의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추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자의 곁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두 가지 모두 결과를 보장해준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모습이 성도의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더욱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어가게 됩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도 산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방식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쉽게 얻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의 마음은 평강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성도가 사도가 비는 복을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사도되신 예수님의 복 빛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사도의 복 빛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5)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새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많은 성도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는 성도의 좋은 예이기에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파포드는 돈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무디 전도단’의 재정후원자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고, 무엇보다 지역교회 집사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고 그는 큰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미 일년 전에 어린 아들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상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겪는 45세의 스파포드는 아내 안나와 네 딸과 함께 잠시라도 위로를 얻길 바라며 유럽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 급한 일로 스파포드는 뒤에 남고 아내와 네 딸만 먼저 배를 탑니다.

그 배가 1873년 11월 22일 새벽,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해 침몰합니다.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11살·9살·5살·2살의 네 딸은 모두 물속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고 소식에 애타게 기다리던 스파포드에게 12월 2일, 전보 한 장이 도착합니다. 단 한 줄—“혼자 살아남았음!”

스파포드는 곧바로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항해 중 선장이 이곳이 비극의 사고 지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순간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무너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일을 귀히 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이 틀 즈음, 그의 마음에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왕하 4:26).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으나 ‘평안’이라는 단어가 마음 속에 계속 맴돌았고, 그는 팬을 들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 글이 찬송가 가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的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니, 그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3. 결론

성도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특별히 주시는 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거룩하여 예수를 부르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성도에게 주시지만, 또한 사도의 축복을 통해 성도가 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을 때 세상을 감당하며,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사도를 통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